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

한미라, 김하강
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Mi-Ra Han, Ha-Gang Kim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okpo Catholic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감성지능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M시의 일개 간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 하였으며,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최종 17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ANOVA, 피어슨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양의 영향력이 있으며, 감성지능과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부분적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자아존중감 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해 의사소통능력 향상의 중요성과 의사소통능력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융복합적 교육 전략의 개발과 중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감성지능, 간호대학생, 매개효과, 융복합 교육,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The study is a cross-sectional survey and the participants were 173 students from one university located in M city.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d Sobel test to test the significance of a mediation effect using SPSS 21 softwar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were that communication competenc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and played a partially mediating role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hese findings imply that communication competence is important to improve the level of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his study highlights the value of fostering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the need to develop various convergence education strategies to promote communication competence in a balanced way to cultivate nursing students' self-esteem.

Key Words : Communication competence, Convergence education, Emotional intelligence, Mediating effect, Nursing students, Self-esteem

Received 28 December 2016, Revised 31 January 2017
Accepted 20 February 2017, Published 28 February 2017
Corresponding Author: Ha-Gang Kim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okpo Catholic University)
Email: khg9090@mc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병원의 다양한 직업군과 상호작용이 빈번한 의료인으로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능력이 요구된다. 개인의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할 경우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이 결여되고[1], 미숙한 의사소통능력으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대인불안이 높아지게 된다[2,3]. 실제로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현장에서 환자 및 의료인과의 관계형성에서 의사소통의 미흡으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4]. 특히 병원에서 의료인간의 부주의한 의사소통은 환자의 안전관리 영역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5], 간호사 의사소통능력은 개인의 대인관계 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간호사로서 필요한 핵심역량의 하나인 의사소통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학부시절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며, 자신을 능력 있고, 존중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믿고, 인정하는 태도를 말한다[6].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상황을 지각하고 인지적으로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7]. 자아존중감이 높은 대학생은 대학생활 적응을 잘하며, 자신에 대한 긍정성을 바탕으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지게 되어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8]. 또한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가치체계와 인성 발달 뿐 아니라 직업에 대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간호사에게 필요한 전문직 가치와 전문직관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9,10]. 즉, 간호사는 이러한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기초로 환자와 친밀하고 치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11]. 또한 최근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자아존중감 변수 간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보고되고 있다[12,13].

감성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평가하여 그 정보를 사고와 행동의 지침이 되도록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인의 사회적 지능이다[14]. 간호사는 병원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의 환자 및 환자 가족의 정서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응대하기 위하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감성을 조절하게 된다[15]. 따라서 간호사에게 있어

감성지능은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환자와 간호사 간의 상호 신뢰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수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16]. 뿐만 아니라 감성지능이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임상현장의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부정적 경험인 감정노동과 소진의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17,18]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감성지능은 의사소통능력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간호사의 감성지능은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이었으며[19], 감성지능의 4개 하부영역 모두가 의사소통능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18]. 한편 대학생 대상 감성지능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 연구를 살펴보면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져 인생만족도가 높아졌으며[20], 감성지능이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21].

이상의 맥락에서 감성지능이 의사소통능력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의사소통능력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해 보면,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은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감성지능의 영향을 받는 의사소통능력은 자아존중감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변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상관관계 및 관련 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는 연구가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12,13,18,19,21]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세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제공하기에는 제한적이다. 간호는 인간 대상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영역에서 전인간호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간호사의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높은 감성지능과 능숙한 의사소통능력은 전인간호를 위해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간호교육에서 세 변수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이해가 필요하며, 향후 효과적 교육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세 변수들의 영향경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 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와 경로를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방안 및 중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의 정도와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과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감성지능과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의 정도와 이들 변수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횡단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의 표적모집단은 M시의 4년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근접모집단은 선정된 대학의 간호학과 1~4학년 학생이다. 본 연구에서는 M시에 소재한 일개 4년제 대학을 편의표집 하였고,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G power 3.1.8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예측변수 12개를 입력하여 산출한 결과 157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183개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73부를 분석하여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의 목적, 내용, 절차, 자료 처리의 익명성,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았다. 또한 대상자의 자율성 및 익명성 보장을 위해 연구자는 설문지의 배부와 회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2.3 연구도구

2.3.1 감성지능

Wong & Law[14]가 개발한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WLEIS)를 Whang 등[22]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6개 문항으로 자기감성 이해 4문항, 타인감성 이해 4문항, 감성조절 4문항, 감성사용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의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7였고, 본 연구에서는 .75이었다.

2.3.2 의사소통능력

Rubin & Martin[23]이 개발한 대인 의사소통능력 측정 도구를 Hur[24]가 수정·보완한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능력척도(GICC: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를 사용하였다. 총 45문항으로 15개 구성개념으로 이루어 졌다. 각 문항은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중 11개의 부정문항은 역환산하여 처리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Hur[24]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6였고, 본 연구에서는 .75이었다.

2.3.3 자아존중감

Rosenberg가 개발하고 Jun[25]이 번안한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3,5,8,9,10 문항은 역환산하여 자아존중감을 계산하였다. 각 항목은 4점의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번안 당시 Cronbach's alpha는 .85였고, 본 연구에서도 .85이었다.

2.3.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은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Dunnett T3를 실시하였다. 세 변수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감성지능과 자아존중감 간에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Baron과 Kenny[26]가 제시한 3단계의 회귀분석 후,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173명으로 여학생 150명(86.7%), 남학생 23명(13.3%)이었다. 4학년이 49명(28.3%)로 가장 많았으며, 3학년이 37명(21.4%)로 가장 적었다.

형제 또는 자매가 있는 경우가 166명(96.0%), 가정의 경제 상태를 '중'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135명(78.1%), 신체상에 대한 '만족함'이 108명(62.4%)로 가장 많았다. 학업성취수준은 '보통'이 122명(70.5%)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스트레스 수준은 '중' 88명(50.9%), '상' 73명(42.2%)의 순이었고,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가 109명(63.0%)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전공 만족도는 '만족' 102명(59.0%), '매우 만족' 47명(27.2%), '불만족' 24명(13.9%) 순이었고, 대인관계 만족도의 경우 '만족' 104명(60.1%), '매우 만족' 63명(36.4%), '불만족' 6명(3.5%)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

3.2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감성지능의 평균은 5점 만점에서 3.60±.48점이었다. 4개 구성개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타인 감성이해 3.87±.53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기감성이해 3.80±.56점, 감성조정 3.47±.71점, 감성활용 3.25±.77점 순이었다. 의사소통능력의 평균은 5점 만점에서 3.67±.40점이고,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4점 만점에 2.85±.43이었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의 차이

감성지능은 자아신체상, 학업성취도, 대인관계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신체상에 만족하는 군은 불만족 군보다($p=.014$), 학업성취도가 높은 군이 보통, 미흡 군보다($p<.001$), 대인관계도가 높은 군이 그렇지 않은 군들에 비해($p<.001$) 감성지능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의사소통능력은 자아신체상, 학업성취도, 대인관계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신체상에 만족하는 군은 불만족 군에 비해($p=.013$), 학업성취도가 높은 군은 미흡한 군에 비해($p=.030$), 대인관계만족도가 높은 군은 그렇지 않은 군들에 비해($p<.001$)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자아존중감은 자아신체상 학업성취도, 스트레스 수준, 전공만족도, 대인관계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아존중감은 자아신체상에 만족하는 군이 보통, 불만족 군보다($p<.001$), 학업성취도가 보통 군이 미흡 군보다($p<.001$)보다 높았다. 스트레스가 적은 군, 보통 군, 높은 군 ($p<.001$), 전공만족도가 높은 군, 보통 군, 불만족 군($p<.001$)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7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23(13.3)
	Female	150(86.7)
Grade	Freshman	44(25.4)
	Sophomore	43(24.9)
	Junior	37(21.4)
	Senior	49(28.3)
Siblings	No	7(4.0)
	Yes	166(96.0)
Perceived economic status	Low	34(19.7)
	Middle	135(78.0)
	High	4(2.3)
Perceived self-body image	Unsatisfied	54(31.2)
	Moderate	108(62.4)
	Satisfied	11(6.4)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Low	43(24.9)
	Middle	122(70.5)
	High	8(4.6)
Level of stress	Light	12(6.9)
	Fair	88(50.9)
	Heavy	73(42.2)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um	No	85(49.1)
	Yes	88(50.9)
Satisfaction in major	Unsatisfied	24(13.9)
	Moderate	102(59.0)
	Satisfied	47(27.2)
Satisfaction of inter personal relationship	Unsatisfied	6(3.5)
	Moderate	104(60.1)
	Satisfied	63(36.4)

3.4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자아존중감($r=.57, p<.001$)과 감성지능($r=.58, p<.001$)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감성지능과 자아존중감도($r=.55, p<.001$)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Table 2> Difference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e, Self-esteem

(N=173)

Characteristics	Categories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e		Self-Esteem	
		Mean±SD	t or F(p) Dunnett T3	Mean±SD	t or F (p) Dunnett T3	Mean±SD	t or F(p) Dunnett T3
Gender	Male	3.71±.64	1.26 (.211)	3.76±.46	1.16 (.248)	2.93±.55	.77 (.448)
	Female	3.58±.46		3.66±.39		2.84±.40	
Grade	Freshman	3.59±.50	.10 (.959)	3.56±.46	2.10 (.103)	2.80±.44	.93 (.428)
	Sophomore	3.63±.50		3.77±.43		2.90±.43	
	Junior	4.00±.54		3.70±.37		2.79±.46	
	Senior	3.57±.39		3.67±.31		2.91±.38	
Siblings	No	3.39±.36	-1.13 (.258)	3.59±.25	-.56 (.579)	2.59±.34	-1.72 (.088)
	Yes	3.61±.49		3.68±.40		2.87±.43	
Perceived economic status	Low	3.47±.45	1.69 (.188)	3.65±.43	.42 (.655)	2.73±.45	2.93 (.056)
	Middle	3.62±.49		3.67±.39		2.88±.42	
	High	3.77±.42		3.84±.31		3.18±.43	
Perceived self-body image	Unsatisfied ^a	3.48±.43	4.36 (.014) c>a	3.58±.42	4.44 (.013) c>a	2.64±.34	17.84 (<.001) c>b>a
	Moderate ^b	3.62±.51		3.69±.39		2.92±.42	
	Satisfied ^c	3.93±.32		3.96±.27		3.33±.28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Low ^a	3.42±.41	9.18 (<.001) c>b>a	3.67±.39	3.57 (.030) c>a	2.59±.35	12.50 (<.001) b>a
	Middle ^b	3.62±.47		3.65±.39		2.94±.40	
	High ^c	4.16±.59		4.03±.42		3.04±.61	
Level of stress	Light ^a	3.88±.50	2.24 (.110)	3.77±.38	.53 (.588)	3.27±.42	11.56 (<.001) a>b>c
	Fair ^b	3.57±.47		3.68±.34		2.91±.39	
	Heavy ^c	3.58±.49		3.65±.46		2.72±.41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um	No	3.60±.51	.08 (.941)	3.66±.46	-.43 (.668)	2.85±.44	-.24 (.812)
	Yes	3.59±.46		3.69±.33		2.86±.42	
Satisfaction in major	Unsatisfied ^a	3.61±.48	3.02 (.051)	3.58±.49	1.86 (.159)	2.64±.42	12.66 (<.001) c>a,b
	Moderate ^b	3.53±.47		3.65±.39		2.80±.41	
	Satisfied ^c	3.74±.50		3.76±.36		3.09±.43	
Satisfac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Unsatisfied ^a	3.23±.57	9.52 (<.001) c>a,b	3.22±.69	12.24 (<.001) c>a,b	2.15±.29	20.12 (<.001) c>b>a
	Moderate ^b	3.50±.45		3.60±.36		2.78±.38	
	Satisfied ^c	3.79±.48		3.84±.36		3.05±.05	

<Table 3> Correlation among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elf-esteem

(N=173)

Variables	Mean±SD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e	Self-Esteem
		r(P)	r(P)	r(P)
Emotional Intelligence	3.60±.49	1		
Communication Competence	3.67±.40	.58(<.001)	1	
Self-Esteem	2.85±.43	.55(<.001)	.57(<.001)	1

<Table 4> Mediating Effect Communication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N=173)

Steps	Direction	β(p)	t	Adj. R ²	F(p)	Sobel test, Z(p)
Step 1	E.I → C.C	.579(<.001)	9.298	.332	86.46(<.001)	
Step 2	E.I → S.E	.547(<.001)	8.555	.296	73.19(<.001)	
Step 3	E.I C.C → S.E	.329(<.001)	4.496	.387	55.21(<.001)	4.517(<.001)
		.376(<.001)	5.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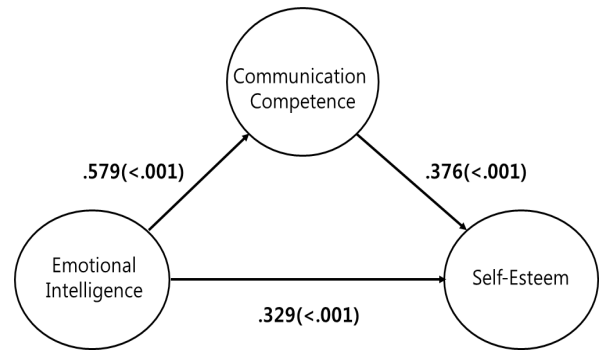
1)E.I.: Emotional Intelligence, 2)C.C.: Communication Competence, 3)S.E: Self-Esteem

3.5 감성지능과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

감성지능과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Barson & Kenny의 매개효과 검증[27]을 실시하였다. 먼저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전에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Durbin - Watson 값은 2.110으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이며, VIF 지수는 1.506으로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매개효과 검정을 실시하였다.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step 1에서 감성지능이 의사소통능력에 유의한 영향($p < .001$)을 주었으며, 감성지능이 높을수록($\beta = .579$) 의사소통능력이 높아졌다. 감성지능이 의사소통능력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33.2%였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step 2에서 감성지능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p < .001$)을 미쳤으며, 감성지능이 높을수록($\beta = .547$) 자아존중감도 높아졌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력은 29.6%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step 3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tep 3에서 매개변수인 의사소통능력은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p < .001$)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인 감성지능 또한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p < .001$)을 주었으나, step 2의 β 값 .547에 비해 β 값 .329로 영향력이 감소되어 매개효과 중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이 높을수록($\beta = .329$),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beta = .376$)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38.7%였다<Table 4>. 추가적으로 부분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수행하였다. Sobel test는 독립변수인 감성지능이 매개변수로 가는 경로 효과크기 a, 매개변수인 의사소통능력이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경로 효과크기 b와 ab 경로의 표준오차 값을 이용하여 공식으로 산출되며 본 연구에서는 자동으로 값을 산출해 주는 웹사이트를 이용하였다[28]. 이상의 검증결과 의사소통능력이 매개하는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변수의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Z = 4.517, p < .001$)되었고, 이를 도식화하면 [Fig. 1]과 같다.



[Fig. 1] The Path Model among Variables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과 자아존중감 사이의 영향관계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감성지능은 5점 만점 기준 3.6점으로, 같은 대상과 같은 도구를 사용한 Lee와 Gu[28]의 연구에서 3.4점, Lee와 Goh[18]의 연구에서 3.64점 (7점 만점을 5점 만점으로 환산)과 유사한 결과였다. 감성 지능의 하위 영역의 점수를 살펴보면 타인감성 이해가 점수가 가장 높았고, 자기감성 이해, 감성 조정, 감성 활용 순으로 간호대학생 대상 Lee와 Gu[28]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고, 간호사 대상의 Park 등[29]과 Ko와 Kim[30] 연구에서 타인감성 이해가 가장 높고, 감성 조정과 활용의 점수가 낮은 순서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간호학의 특성상 간호사 본인의 감성이나 의견에 대한 관심보다 환자들의 감정을 파악하기 위해 관찰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타인감성 이해를 주로 훈련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감성지능 중 감성 활용 영역은 감성정보를 조직하고, 이용하여 문제해결을 돕고 건설적 활동에 감정을 활용하는 능력으로[14], 간호사의 감성지능의 하위영역 중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8]. 따라서 향후 간호대학생 및 간호사 대상 감성지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할 때 감성 조정 및 감성 활용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의 평균은 5점 만점 중 3.67점으로 같은 도구로 간호대학생 1학년에서 4학년을 대상으로 한 Hwang 과 Lee[4]의 3.51점과 비슷하게 중등도의 점수를 나타냈다. 국내 간호교육에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술의 중요성은 이미 인식되어 왔으며,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대상자 건강개선을 위한 전문분야 간 의사소통능력을 학부과정에서 성취해야 할 핵심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31]. 그러나 지금까지 교과과정의 의사소통교육은 주로 이론수업으로 편성되어 실질적 효과 증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32],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시뮬레이션과 같은 실질적인 경험과 실습 위주의 다양한 교육방법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33].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 중 평균 2.85점으로,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34, 35]와 비슷하게 중등도 수준의 결과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중 지각된 학업성취도[34,36], 전공만족도[34] 정도에 따라 유의하게 자아존중감 정도의 차이를 보인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다. 특히, 자아존중감은 대학생과 같은 청년시절에 경험하는 신체적, 사회적 상황적 환경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므로 [37], 대학 재학 기간 동안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전략들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은 직접적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의사소통능력을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간호사의 인문학적 소양,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 사이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Ha와 Jeon의 연구 결과[38]와 일맥상통하다. 특히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39], 독서요법[35] 프로그램 적용 후 자아존중감 상승을 보고한 결과는 정서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감성지능이 개발되어 긍정적 자기인식과 자아상 정립에 도움을 주어 자아존중감이 상승되었음을 시사 하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즉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상자들이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의견을 나누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치며 의사소통능력이 강화되었고, 이러한 의사소통능력은 자아존중감의 상승에 부분적 매개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된 점은 의사소통능력이 감성지능의 영향력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ark[40]은 결과변수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지는 않았으나, 상황적 맥락이 주어진 역할극을 활용한 프로그램 적용으로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이 증진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역할극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인식은 물론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성을 인식 및 조정하고, 활용하는 감성지능이 훈련될 수 있었고, 역할극의 표현과정에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측면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있어 기존의 교수법과 수업전략에서 벗어나 맥락적이고 상황적인 교육환경에서 경험과 성찰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법에 대한 고민과 다양한 실험적 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검증된 의사소통능력의 부분매개효과와 검증은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감성지능을 개발하는 것 외에 의사소통능력 향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간호교육에서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사에게 필수적인 역량으로 대학 교과과정에서 다루어져 왔으나, 주로 환자의 감정과 의견에 초점을 맞추는 치료적 의사소통영역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을 명확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부족한 현실이다[4]. 선행연구에서 자신의 감정, 의견, 신념을 나타내는 자기주장훈련을 통해 의사소통능력과 자아존중감이 증진된 결과[12, 13]는 기존의 간호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영역인 자기주장을 통해 전반적인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고, 그 결과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음을 지지하는 예라 할 것이다.

간호사에게 치료적 의사소통능력은 환자의 질병치료 및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자 중심의 접근으로 간호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기본적 의사소통능력이다. 그러나, 간호사의 직무 영역을 고려할 때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 병원조직에서 간호사의 포괄적 의사소통능력은 환자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문제해결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즉, 의사소통능력이 미흡하게 되면 대인관계에서 불안[3,4]과 스트레스를 얻게 되고 [5],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졌던 감성지능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 즉,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의사소통교육은 기존의 간호교육에서 강조해온 치료적 의사소통 이상의 포괄적 의사소통능력의 함양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향후 간호교육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해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은 물론 의사소통영역 전반에서 균형적으로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다양한 융복합적 교육 전략 및 방법의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이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감성지능이 의사소통능력과 자아존중감 증진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 외에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영향 요인들을 포함한 이론에 근거한 구조모형 연구를 통해 다양한 요인과 경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의사소통능력은 여러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효과적인 교육적 전략 수립을 위해 의사소통능력의 각 구성요소와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및 영향정도의 검증이 추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는 중재적용을 위한 구체적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달하여 다양한 양방향 참여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시뮬레이션 기반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과 같은 디지털 매체 융합을 통해 상황적, 맥락적 상황에서 인식과 반응이 가능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중재 개발 영역에서 디지털 융복합 접근을 통한 교육 방법 및 매체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J. I. Bae, "A study of on the stress and recognition for psychiatric patients of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linical experience in the psychiatric uni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8, No. 2, pp. 411-423, 1999.
- [2] H. W. Cho, J. H. Yang,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tient safety culture and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mong health personne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9, No. 1, pp. 407-413, 2012.
- [3] G. S. Jeong, K. A. Kim, J. A. Seong, "The effect of learning styl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ommunication skill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3, pp. 413-422, 2013.
- [4] A. H. Laidlow, "Social anxiety in medical students: implications for communication skills teaching." *Medical Teacher*, 31, pp. 649-654, 2009.
- [5] S. K. Hwang, Y. J. Le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ocial anxie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21, No. 4, pp. 518-527, 2015.
- [6] M. S. Chung, "The relations of self-esteem, practical performance, and practical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 18, No. 1, pp. 60-68, 2009.
- [7] M. S., Lee, P. K. Chae.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Vol. 12, No. 1, pp. 63-75. 2012.
- [8] Y. K. Kang,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5, pp. 2178-2186, 2013.
- [9] T. A. Lacobucci, B. J. Daly, D. Lindell, M. Q. Griffin, "Professional values, self-esteem, and ethical confidence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Nursing Ethics*, Vol. 20, No. 4, pp. 479-490, 2012.
- [10] Y. M. Kwon, E. J. Yeun,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3, No. 3, pp. 285-292, 2007.
- [11] J. Ohlen, K. Segesten,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the nurse. concept analysis and develop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28, No. 4, pp. 720-727, 1998.
- [12] Y. R. Lin, I.S. Shiah, Y.C. Chang, T. J. Lai, K. Y. Wang, K. R. Chou, "Evaluation of an assertiveness training program on nursing and medical students' assertiveness,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Nurse Education Today*, Vol. 24, pp. 656-665, 2004.
- [13] S. Unal, "Evaluating the effect of self-awareness, and communication techniques on nurses' assertiveness and self-esteem." *Contemporary Nurse*, Vol. 43, No. 1, pp. 90-98, 2012.
- [14] C. Wong, K.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Vol. 13, No. 3, pp. 243-274, 2002.
- [15] F. Kim, A. McCloughen, C. Delgado, D. Kefalas, E. Harkness,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 in pre-registration nursing programmes: An integrative review." *Nurse Education Today*, Vol. 35, pp. 510-517, 2015.
- [16] J. M. Morse, "Negotiating commitment and involvement in the nurse-patient relationship."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16, No. 4, pp. 455-468, 1991.
- [17] S. Y. Kang, "Impact of nursing students' emotional labor on burnout during nursing practice in a hospital: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Academic Nursing Administration*, Vol. 21, No. 7, pp. 77-87, 2015.
- [18] Y. B. Lee, M. S. Koh, "The effect of clinical nurses'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 21, No. 3, pp. 347-354, 2015.
- [19] J. Y. Ha, S. Y. Jeon, "The effects of humanistic knowledge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communication skills of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3, pp. 264-273, 2016.
- [20] F. Kong, J. Zhao, X. You. "Emotional intelligence and life satisfaction in Chinese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53, pp. 1039-1043.
- [21] C. K. Cheung, H. Y. Cheung, M. T. Hue, "Emotional intelligence as a basis for self-esteem in young adults", *The Journal of Psychology*, Vol. 149, No.1, pp. 63-84, 2015.
- [22] P. J. Whang, I. S. Lee, M. K. Jeon. "The influence of employees' emotional intelligence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Productivity Review*. Vol. 25, No. 3, pp. 311-330, 2011.
- [23] R. B. Rubin, M. M. Martin, "Development of a measure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Vol. 11, No. 1, pp. 33-44. 1994.
- [24] G. H. Hu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47, No. 6, pp. 380-408, 2003.
- [25] B. J. Ju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Vol. 11, pp. 109-129, 1974.
- [26]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 1173-1182. 1986.
- [27] D. S. Soper, "Sobel test calculator for the

- significance of mediation”, <http://danielsoper.com/tatcalc/calculator.aspx?id=31>, Dec 10, 2016.
- [28] O. S. Lee, M. O. Gu, “Development and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program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ixed methods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Vol. 44, No. 6, pp. 682-696, 2014.
- [29] H. S. Park, J. H. Ha, M. H. Lee, H. J.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tress coping of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Fundamental nursing*, Vol. 21, No. 4, pp. 466-474, 2014.
- [30] H. R. Ko, J. H. Kim, “The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job satisfaction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3, pp. 413-423, 2014.
- [31]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Key competencies and learning outcomes.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4”, <http://www.kabone.or.kr/HyAdmin/upload/goodFile/120121127132143.pdf>, Dec 10, 2016.
- [32] H. M. Son, H. S. Kim, M. H. Go, S. J. Yoo, “Analysis of the communication education in the undergraduate nursing curriculum of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4, No. 3, pp. 462-434, 2011.
- [33] S. MacLean, M. Kelly, F. Geddes, O. Della, “Use of simulated patients to develop communication skills in nursing education: An integrative review.”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48, pp. 90-98, 2017.
- [34] M. S. Yoo, Y. S. Kim, M. S. H, J. A. Ahn, “Analysis of self-esteem,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problem-solving capacity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Health Communication, The Offici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Vol. 7, No. 1, pp. 18-27, 2012.
- [35] Y. M. Ryu.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on Self-esteem, Character Strengths, Emotional Awareness, and Empath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014.
- [36] M. H. Nam, H.O. Kim. “Relations between clinical practice emotional labor, self esteem and satisfaction of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 pp.263-273, 2016.
- [37] S. Lyubomirsky, C. Tkach, M. R. DiMatteo,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happiness and self-esteem?”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78, pp. 363-404, 2006.
- [38] J. Y. Ha, S. Y. Jeon. “The effects of humanistic knowledge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communication skills of nursing.”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3, pp. 264-273. 2016.
- [39] G. Y. Jo. “The Effects of ‘Becoming Happy I’ Program on Gratitude Disposition, Self-Esteem, Flow, and Subjective Happiness for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Daegu, 2011.
- [40] E. O. Park. “Effects of family nursing practicum using role play on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ability, and family nursing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1, pp. 97 - 105, 2013.

한 미 라(Han, Mi Ra)



- 2013년 3월 ~ 2017년 2월 : 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5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박사 수료)
- 관심분야 : 간호교육, 시뮬레이션 교육
- E-Mail : calligyne@mcu.ac.kr

김 하 강(Kim, Ha Kang)



- 2010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4년 3월 ~ 2017년 2월 : 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만성정신질환간호, 정신간호중재프로그램개발
- E-Mail : khg9090@mcu.ac.kr